

2021년 제6차 교육문화분과 회의록

일 시	2021. 6. 16.(수) 14:00~15:30	작성	신다희	
장 소	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2층 교육장			
참석자	총 9명(위원 8명, 간사 1명)			
	김성중(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장)	-	박은정(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 팀장)	○
	변선옥(평실사협회 이사)	○	송종백(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)	-
	김승영(수원시장에인종합복지관 팀장)	○	안치범(서수원주민편익시설 생활체육팀장)	-
	고성준(윤슬청소년지역아동센터장)	-	오경수(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팀장)	○
	김미연(연무사회복지관 과장)	-	유지선(팔달노인복지관 팀장)	○
	김은정(수원평생교육사협회 사무차장)	○	유현성(수원체육문화센터 부장)	○
	박설희(수원민예총 지부장)	○	장범준(도서관정책과 정책팀장)	-
			신다희(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)	○
회의 결과	<p>1. 문화예술정책 이해를 위한 교육</p> <p>가. 문화정책 및 재정 알아보기(수원시정연구원 최지연 연구위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범주 : 예술보다는 크고 광의의 문화보다는 작은 지점으로 다양하게 포함할 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문화 내 예술, 주거, 문화재를 다루는 경우가 많고 체육·관광은 경우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짐 - 중앙정부 재정구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반회계, 기업특별회계, 기타특별회계(목적에 의해 생성된 지정예산), 기금(복권 수입 등 세금 외 별도 국가수입) · 문화예산의 단계적 증액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현재 2% 초과된 비중 유지 ·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과거 영화 입장료 등에 포함되었던 축적예산을 계속 지출하는 중이며 지출 대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님. 지금은 영화발전기금으로 분리되어 운영 중 - 지방정부 재정구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으로 분리 운영하며 일반재정 내 일반회계, 공기업특별회계, 기타특별회계, 기금으로 구성 · 부처별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 선정 및 인프라·설비 설치 시 국·도비 매칭사업을 할 경우 전체 예산 내 중복내용이 발생하므로 '순계'예산규모를 파악해야 함. 총 지출 규모를 파악하고자 할 때는 '총계'를 확인하도록 함. · 지자체 재정은 국가의 국방·외교 예산 등이 제외되면서 자연스럽게 타 영역 전반에 분산되며 증액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함. 중앙정부 대비 가용예산이 늘어난 것으로만 단순 비교하면 실질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움. - 지자체별 문화예산 비교(2018년도 문화예산 상위 15개 기초자체단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기초비용+인구 수에 따른 α가 있으므로 인구가 적은 시군의 1인당 예산액이 높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혜택이 더 많다고 해석해서는 안 됨. 인구가 적은 시군은 인프라(교통·물류, 국토·지역개발 등)에 지출되는 비용이 적기 			

때문에 1인당 예산액만 단순 비교하기보다 여러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며 해석할 필요가 있음

- 수원시 문화행정조직

- 기존 문화예술진흥원이 관 주도하에 운영된다고 하여 민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의 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마다 만들자는 추세였으나 수원시는 문화재단이 있어 미추진됨
- 경기아트센터가 수원시 소재에 있어 시립전문공연장 설립의 필요성 인지가 뒤늦게 이루어진 사례로 문화재단 출범과 공연장(SK아트리움) 설립이 같이 이루어짐
- 문화예술분야 공무원 증원은 인구 수 대비 총 정원 지침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, 별도 산하기관인 수원문화재단에서 시설운영, 문화사업 대행, 예술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.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마다 도서관을 재단이 위탁운영하는 사례가 있음

- 수원시 문화재정분석

- 2020년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나 코로나19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. 문화 및 관광영역은 당초 본예산에 비해 축소폐지된 사업이 많아 최종예산 감액되어 6.09% > 4.43%의 비중으로 나타남. 상당 부분 재난지원금으로 반환하고 예술인 지원기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. 그러나 분산된 예산이 어디로 편입되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음
- 10년 간의 세출예산 배분 추이 중 차이가 두드러지는 연도는 무슨 일로 증감되었는지 세부적인 사유와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. 그 예로 2014년은 도서관 건립, 2016년은 수원방문의 해로 관광수익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. 전반적으로 문화 및 관광영역은 감액되는 추세로 나타남

▶ 제안사항

- 총 세출예산서 중 일반회계만 대상으로 전체 예산 구조 파악 후 범위 설정 → 예산서 내 분류 기준은 세부사업까지 다룰 경우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양이 많을 수 있어 정책 또는 단위(회계) 기준으로 추출-분류-해석 정리 작업 필요
- 부서 기준 정렬 시 문화예술과를 중심으로 분석하더라도 무리 없다고 판단됨. 미술관과 박물관의 예산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, 관광과 및 체육진흥과 포함여부는 판단하여 추진하도록 함
- 수원시와 인구 규모가 유사하고 문화정책 벤치마킹이 가능한 비교 가능 도시는 고양시, 용인시, 부천시, 성남시, 창원시가 있음

2. 2021년 교육문화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추진 논의

가. TF팀 구성 : 변선옥 분과장, 김은정, 박설희, 오경수 위원

* 회의 종료 후 추가 : 김미연 위원

나. TF회의 일정은 별도로 정함

